

# With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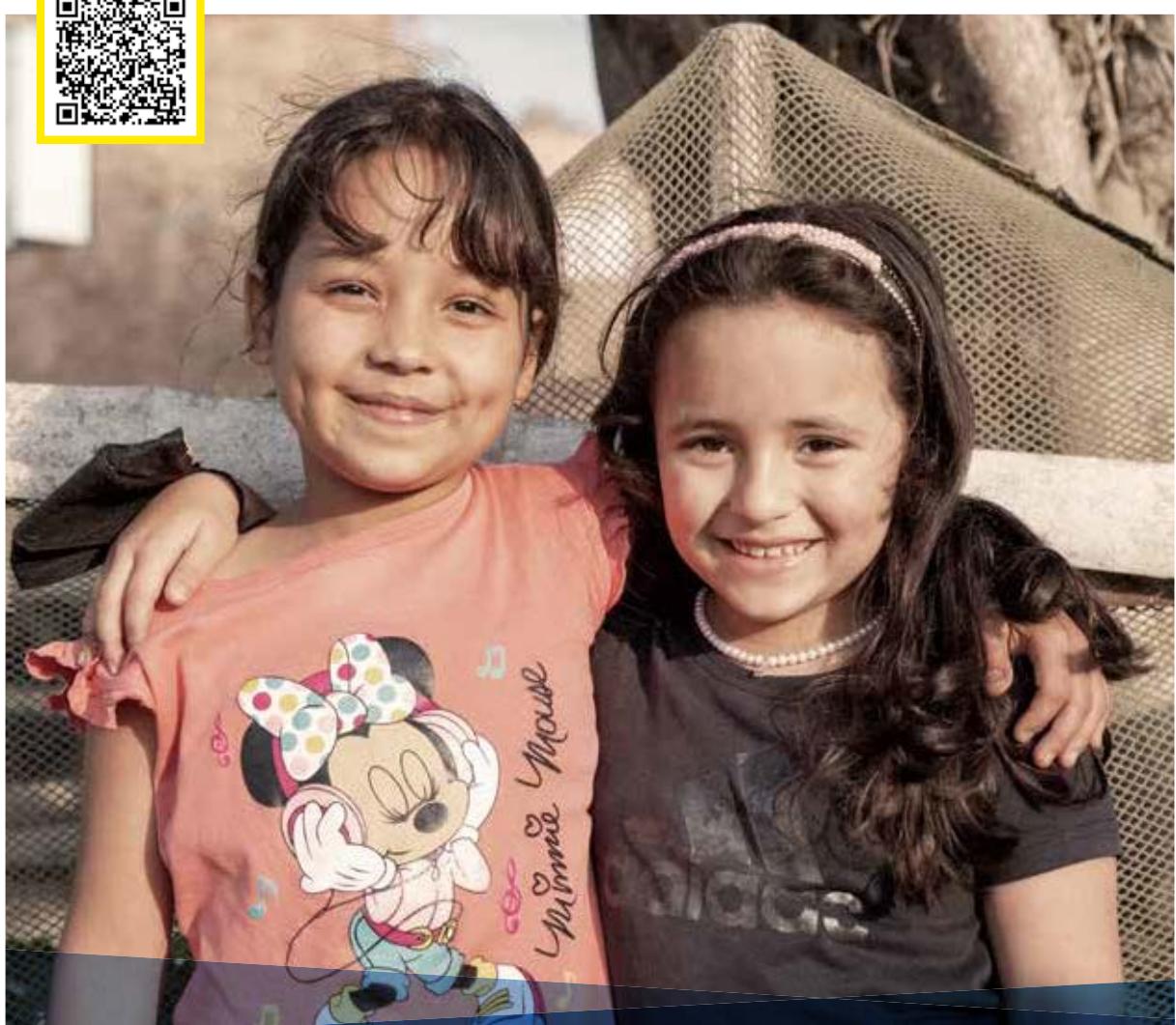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로 보기



2023 Summer

통권 49호



난민과 함께하는 세상,  
타향에서 마주하는 희망

## 유엔난민기구(UNHCR, UN Refugee Agency) 소개\*



\* 출처: 2022 UNHCR 연례 보고서  
\*\* 전 세계 강제 실종민 및 무국적 수치는 1억 1,260만 명

## Contents



- 03 현장에서 온 편지  
그리웠습니다



- 04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난민과 함께하는 세상,  
타향에서 마주하는 희망



- 16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난민 배움터: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더 스위머스(The Swimmers)



- 20 우리는 현장을 지킵니다  
① 수단 분쟁  
② 미얀마-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모카

## Cover Story



페루에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 친구. 방과 후 수업에서 페루 아이들과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아이들은 함께 숙제하고 축구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UNHCR/Nicolo Filippo Rosso

발행일 2023년 7월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인 전혜경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팀  
디자인 (주)이팝

### # 해시태그 캠페인

With You 2023년 여름호 소식지 표지를 찍어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에 해시태그 #유엔난민기구 #난민과함께 와 같이 올려주세요. 포스팅 인증사진을 문자(1666-5398)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의 책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보내드립니다.

기한 2023년 8월 25일 (금)까지

## 유엔난민기구 온라인 채널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http://blog.naver.com/unhcr_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http://happylog.naver.com/unhcr)

유튜브  
[youtube.com/unhckorea](http://youtube.com/unhckorea)

인스타그램  
[instagram.com/unhcr\\_korea](http://instagram.com/unhcr_korea)

페이스북  
[facebook.com/unhcr.korea](http://facebook.com/unhcr.korea)

트위터  
[twitter.com/UNHCKorea](http://twitter.com/UNHCKorea)

# “그리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두 형제는 가족과 헤어져 지난 3년간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가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형제가 지내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호 시설에서 가족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습니다. 형제는 가족과 함께 고향 킨샤사(Kinshasa)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UNHCR/Zsolt Balla



©UNHCR/Zsolt Balla



©UNHCR/Zsolt Balla

전 세계 난민이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 난민과 함께하는 세상, 타향에서 마주하는 희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나와 다른 타인'에게  
얼마나 열려있습니까?

분쟁과 폭력, 박해로 인해  
평범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난민.

포용과 연대의 힘으로, 이들이 타향에서  
마주한 '희망'의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설립된 나이지리아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 카메룬 난민 아이들과 나이지리아 현지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뛰어노는 이 학교의 정원 630명 중 약 570명이 난민 학생입니다. ©UNHCR/Lucy Agiende

# 희망의 순간들



© UNHCR/Pauline Omagwa

케냐 카쿠마 난민촌 학교에 함께 다니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데이비드(David)와 남수단 난민, 마이엘(Mayiel)은 3년 전부터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공부하며 책상과 책을 나누어 씁니다.



© UNHCR/Nicolo Filippo Rosso

페루에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 친구. 방과 후 수업에서 페루 아이들과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아이들은 함께 숙제하고 축구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이들 사이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특히, 가족 지원 네트워크가 부족한 베네수엘라 가정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됩니다.



© UNHCR/Samuel Otieno

르완다에서 보호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난민 아이들과 르완다 현지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UNHCR/Saikat Mojumder

벵글라데시 쿠투팔롱(Kutupalong) 로힝야 난민촌에서 살고 있는 다섯 살 수마야(Sumaya)는 신체장애와 자폐스펙트럼을 앓고 있어서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의료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레바논에서 스웨덴으로 재정착한 시리아 난민 가족이 앨범을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 UNHCR/Max-Michel Kolijn

르완다 주민과 난민이 습지 농업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일할 뿐 아니라,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파트너사, 이케아(IKEA)의 재정 지원을 받아, 유엔난민기구가 르완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기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덕분에, 기술을 연마하고, 가족 부양을 위해 농산물을 재배하며, 자립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UNHCR/Samuel Otieno



© UNHCR/Jaime Giménez

유엔난민기구가 페루와 국경이 맞닿은 에콰도르 남서부 도시 후아킬라스(Huaquillas)에서 개최한 아트 워크숍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어린이들이 에콰도르 아이들과 함께 손을 모으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 UNHCR/Ola Kabalan

작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과 국내 실향민,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유엔난민기구가 지원하는 시리아 다마스쿠스(Damascus)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전 세계 난민의 회복력을 기리며, 함께 그림을 그리고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세계 곳곳의 ‘희망’ 이야기

집을 떠난 곳에서 교육과 직업, 생계 지원 등의 기회를 통해 희망을 되찾은 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 곁에서 희망을 전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 교육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꽂피우는 바남의 이야기



난민 장학금 덕분에 교육을 이어가게 된 바남  
© UNHCR/Ali Sawadogo

반군 세력의 교회 공격에서 살아남은 바남(Banam)은 2014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부르키나파소로 피난했습니다. 부르ки나파소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영양사가 되는 꿈을 키웠지만, 2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학비를 내지 못해 대학 교육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2021년, 바남은 다피(DAFI) 난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코트디부아르에서 다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가 5년 전 잊었던 희망을 되찾게 해주었어요. 한때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봤지만, 이러한 기회 덕분에 다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난민 장학생처럼 바남의 꿈은 빈곤이 팽배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양실조는 전 세계에서, 특히 제 조국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큰 영아 사망 원인이에요. 저는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학비와 집세,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장학금 덕분에, 바남은 이제 다시 오롯이 자신의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 장학금의 영향은 평생을 갑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교사이자 교육 컨설턴트, 커뮤니티 리더로 일하며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45세의 무게마나(Mugemana)가 이야기합니다. “장학금 이상의 도움을 받아요. 삶 속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받고 구직을 포함해 다양한 도움을 얻습니다.” 난민 장학금은 독일 정부의 후원과 덴마크 정부, 체코 공화국 정부, 유엔난민기구, 민간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1992년 시작 이래 난민 학생 21,500명의 고등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난민 장학금 덕분에 교육을 이어가게 된 바남  
© UNHCR/Ali Sawadogo



장학금을 받아 다시 교육에 매진하는 바남  
© UNHCR/Ali Sawadogo



바남의 이야기 더보기



8

아크네스카  
폴란드

바남  
코트디부아르



피에르  
콩고민주공화국

### |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빚어내는 마리아의 이야기



사업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마리아 © UNHCR/Nicolo Filippo Rosso



마리아의 이야기 더보기

마리아(Maria)는 5년 전, 어린 자녀가 심각한 신장염에 걸린 후 베네수엘라를 떠나 페루 남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특수 교육을 전공하고 베네수엘라에서 다년간 경영 분야의 경험을 쌓았지만, 처음 페루에 도착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치과 보조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여는 매우 낮았고, 살 곳을 구하지 못했던 그녀와 어린 아들은 직장 사무실에서 지내다가 곧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마리아는 다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갖는 건 훨씬 견고한 기반을 의미해요.”

마리아는 엠파나다\*를 만드는 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페이스트리 반죽 시트를 파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저축한 돈을 거의 다 투자해 기본 장비인 전동 믹서와 반죽 압연기를 구입하고 오랜 시간 일했지만, 소수의 고객에게 반죽 시트를 판매할 수 있었을 뿐, 생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사업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 <사업가 멘토십 프로그램>을 들으면서부터였습니다. “거의 일 년을 아무런 체계 없이 일했고, 제 순수익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지 못했죠. 먹고 살기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멘토십 프로그램은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유엔난민기구의 파트너 기관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무와 마케팅과 같은 사업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2021년 4월 이후, 약 140명의 난민 및 이주민 초보 사업가가 필요한 기술을 배워 생존뿐 아니라 사업 성장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판매가를 올리는 걸 두려워하거나, 원자재나 전기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재정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냉혹한 수치를 보게 되면 상황은 바뀌죠.” 프로그램 멘토가 이야기합니다.

현재 드 마사(De Masa)라는 엠파나다 반죽 회사 대표가 된 마리아는 덕분에, 매출을 두 배로 늘리고 베네수엘라 출신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멘토십 프로그램은 제 사업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줬어요.”**



반죽 시트를 만들고 있는 마리아 © UNHCR/Nicolo Filippo Rosso  
\* 밀가루 반죽 안에 다양한 속재료를 넣고 반죽을 반으로 접어 굽거나 튀긴 요리

9

## | 희망이 자라는 땅, 피에르와 자카리의 이야기



부룬디 난민 피에르 © UNHCR/Aline Irakarama

콩고민주공화국 주민들과 부룬디 난민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서 활기찬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지역 주민 자카리(Zacharie)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밭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곳에 온 부룬디 난민들이 토마토, 양배추, 양파, 가지 등을 재배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마을 시장에선 이런 채소들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부룬디 난민 피에르(Pierre)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자카리가 들려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서 함께 채소를 수확하자고 했죠.”

2015년 6월 대선 이후 폭력 사태를 피해 부룬디를 떠나 이곳에 온 피에르는 이웃 주민들의 관대한 도움 덕분에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피에르는 한밤중 아내와 네 명의 자녀를 데리고 국경을 건너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들어왔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절망에 빠져 삶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습니다. “같이 도착한 스와힐리어를 할 줄 아는 가족을 통해 소액이라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고,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다른 가족들과 작은 공간에서 함께 지냈는데, 열심히 일해서 나중엔 우리 가족을 위한 거처를 마련했어요. **이제 우리를 받아준 지역사회에 보답할 차례예요.**”

자카리 또한 피에르를 만나기 전, 식용 팜유를 생산하는 일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마다 둡던 농사일을 전업으로 하게 되었고, **피에르에게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작은 땅을 빌려 경작하면서 사정이 나아져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밭을 가는 것에서부터 농사에 적합한 씨앗과 도구를 고르는 것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자카리가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피에르는 현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자카리에게 스와힐리어도 배우고 농사에도 열심입니다. “힘들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좋은 품질의 종자는 비싸지고 있고, 경작할 땅이나 적절한 농기구가 없을 때도 있긴 하지만요.”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함께 난민들에게 농기구와 종자를 제공하고 이들이 경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에르와 난민 농부들은 앞으로 더 넓은 농지에서 더 다양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들은 현재까지 40명 이상의 지역 주민에게 농업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난민들의 노력과 기술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들의 연대 노력과 의지에 감사해요. 이들이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마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어요.**” 한 마을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종, 특히 수확기에 친구들을 밭으로 데려가서 농사를 시작하도록 격려해요. **피에르와 그의 가족이 외국 땅에서 많은 것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카리가 말합니다.

피에르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농작물을 기르는 자카리  
© UNHCR/Aline Irakarama

피에르와 자카리의 이야기 더보기

## | 희망을 나누는 센터, 폴란드 봉사자 아그네스카의 이야기



25년 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 아그네스카 © UNHCR/Anna Liminowicz

아그네스카(Agnieszka)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난민을 위한 구호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년이 넘은 지금 폴란드 크라쿠프(Krakow)에서 두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이고, 다른 한 곳은 후원받은 옷, 음식, 위생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필요 물품을 무료로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요. 도와야만 해요. 이게 제 천성인 것 같아요.”**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된 처음 몇 개월간 많은 폴란드 시민이 이러한 봉사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2022년 4월, 한 공공설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폴란드인 3명 중 2명이 가족 구성원 중 최소한 한 명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왔다고 답했습니다.**

아이 옷을 구하기 위해 센터를 찾은 우크라이나 난민  
© UNHCR/Anna Liminowicz

아그네스카의 이야기 더보기

센터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아그네스카  
© UNHCR/Anna Liminowicz



#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난민이 분쟁과 박해를 피해 안전을 찾은 곳에서 교육, 일자리, 의료 서비스 등 기본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삶을 재건하고 목적의식을 되찾으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와 함께 난민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 없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나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활동 더보기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으로 설립된 아프가니스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 UNHCR/Chinar Media



## ① 교육

전 세계 난민의 거의 절반은 18세 미만이며, 피난길에 오른 어린이와 청소년은 수년간 학교 교육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난민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무장 단체에 강제 징집되거나 아동 노동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재건하며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어린이와 젊은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 선언은 교육을 글로벌 난민 대응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며,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UN SDG) 4번째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프간 학생  
© UNHCR/Mercury Transformations

## ② 생계 지원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피난한 사람들이 존엄하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생계를 꾸릴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난민은 안전한 일자리를 통해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미래를 건설할 힘을 얻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케냐 카무마(Kakuma) 난민촌에서 팔찌를 만드는 우간다 난민 여성들 © UNHCR/Loduye Ghaisen



생계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품 가공 교육을 받은 여성 © UNHCR/Modesta Ndu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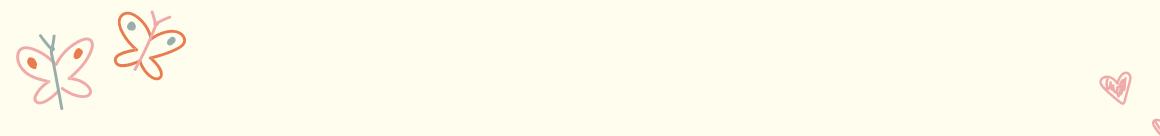
## ③ 의료 보건 서비스

건강은 난민이 삶을 재건하는 데 필수 요건입니다. 오랜 기간의 강제 실향은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UN SDG) 3번째는 부분적으로 보편적 의료 보장을 통해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 필수 건강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및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민 및 수용국 지역사회가 접근하는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며, 보편적 의료 보장이라는 목표에 따라 난민을 국가 의료 보건 시스템에 완전히 포함할 것을 옹호합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난민이 백신 접종 등 각국의 코로나19 계획 및 대응 정책에 포함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난민촌에서 영양상태를 검사받는 어린이 © UNHCR/Eduardo Soteras Jalil

요르단 아즈락(Azraq) 난민촌 클리닉에서 소아마비 백신을 경구 투여받는 아기  
© UNHCR/Christopher Herwig

## ④ 해결책

장기적인 해결책 모색은 설립 이래 기구의 핵심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난민과 실향 상황의 종식을 의미하며, 난민 가족은 이는 통해 마침내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평화와 존엄성을 유지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삶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와 함께 난민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돋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에는 피난처를 찾은 국가로의 통합, 본국으로의 자발적 귀환, 제3국으로의 재정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유엔난민기구 지원 센터를 방문한 아프가니스탄 귀환민 가족 © UNHCR/Caroline Gluck

탄자니아에서 부룬디로 돌아온 귀환민 가족  
© UNHCR/Samuel Otieno

\* 장인 기술을 가진 난민과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 제품을 디자인,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돋는 난민 생계 및 자립 지원 이니셔티브 <https://www.made51.org/>



## 세계 속의 난민, 우리 속의 난민



### 전 세계 난민,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분쟁과 폭력으로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강제 실향민은 2023년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이 강제 실향민인 셈입니다.

집을 떠난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자국 내 좀 더 안전한 다른 지역에 머물거나 혹은 국경 넘어 주변국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갑니다. 주변국에 머무는 난민들은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대부분 난민으로서 삶을 이어가지만, 비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피난한 국가에서 지내던 난민 중 110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혹은 더 먼 국가로 이동하거나 제3국에 재정착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재정착 사례는 전 세계 난민의 1% 미만으로 매우 적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만 명 이상이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재정착을 신청했고, 이 중 58,000명 이상이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가로 떠났습니다. 재정착 신청 이유는 법적 및 물리적 보호 필요, 폭력과 고문 생존자, 위험에 처한 여성과 소녀 등을 포함했습니다.

#### 세계 강제 실향민

1억 명 이상

#### 비호국에서 시민권 취득한 난민

110 만 명

#### 세계 인구 대비 강제 실향민 비율

1/80

#### 세계 난민 중 재정착 신청 사례

1 % 미만



2022 글로벌  
동향 보고서(영문)

## | 한국의 난민

대한민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2년 11,539건을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난민 인정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신청자 84,922명 중 총 1,338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으며,

2022년 한 해 동안은 175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총 2,485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6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 국내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수 (1994년~2022년)



\* 자료 출처: 법무부 출입국 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12월호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인도적 체류자):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 심사 완료건 대비 인정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법무부 자료



더보기(영문)  
국가별 난민 통계, UNHCR Data Finder

2018년 예멘 난민들과 2021년 아프간 특별 기여자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난민은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난민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민’이라는 고리표를 달게 되었지만, 집을 떠나 정착한 곳에서 교육과 일자리, 머물 곳과 의료 서비스 등 기본 권리를 누리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삶을 재건하고 사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빈손으로 집을 떠났을지언정, 자신만의 고유한 지식과 기술, 경험과 재능, 잠재력을 지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난민과 함께 하는 하나의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여러분의 후원의 손길로 일어난 변화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지원 현황 업데이트: 2023년 4월~6월

## ① 우크라이나

지난 6월 6일,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최소 80개의 도시와 마을이 물에 잠기고 수천 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물통, 위생 키트, 침구류를 포함한 긴급구호 물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하고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호우카 댐 파괴 후 침수된 마을  
© UNHCR/Octavian Mohorea



헤르손(Kherson) 주에서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유엔난민기구  
© UNHCR/Octavian Mohorea

## ③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폭력 사태로 62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열악한 생활 환경 가운데, 성 기반 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키후 고마(Goma)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60만 명 이상이 극심한 기상 조건을 견디기에 부적합한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에게 담요, 방수포, 긴급 거처, 사회심리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양동이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 콩고민주공화국 실향민 투쿠제(Tukuze) -

“비록 먹을 게 많지는 않지만, 깨끗한 접시와 냄비는 건강을 보장해 줘요. 이러한 키트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도와줬어요.”

- 콩고민주공화국 실향민 부밀리야(Vumiliya) -



## ② 시리아

지난 5월 16일은 수천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강제 실향민을 낸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태어난 코도르(Khodor)가 태어난 지 99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코도르의 가족이 시리아 하마(Hama)주의 임시 공동 시설에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돋는 등 현장에 남아 지진 피해 인구를 위한 재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직원과 이야기 나누는 코도르의 어머니  
© UNHCR/Saad Sawas



## ④ 에티오피아

지난 2월 소말리아 라스카나우드(Laascaanood)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수천 명이 강제 실향민이 되고 10만 명이 에티오피아의 소말리 지역으로 피난한 가운데, 최근 에티오피아로 들어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미르칸(Mirqaan) 지역 의료진과 협력해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했고, 난민 수십 명이 홍역과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원에 발전기를 제공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파트너 기관과 협력해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분리된 가족을 보호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역 예방 접종을 받는 소말리아 난민 어린이  
© UNHCR/Diana Diaz

## ⑤ 브라질

브라질 정부와 협력하여 지난 5년간 국경 지역 호라이마(Roraima) 주의 난민과 이주민 10만 명을 자발적으로 다른 930개 도시로 재이주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립과 통합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수혜자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나는 베네수엘라 가족  
© UNHCR/Allana Ferreira

## ⑥ 르완다

전체 난민 인구 중 절반 정도가 18세 미만인 르완다에서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축구공, 배구공, 럭비공, 축구화, 스포츠 매트, 호루라기, 심판 유니폼을 구매해 마하마(Mahama) 난민촌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마하마 난민촌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신청으로 이뤄지며, 신청자가 희망 스포츠 선택 후 팀을 구성해 오면 그에 맞는 코치들이 배정되는 구조예요.

축구가 가장 인기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모던 댄스, 전통춤, 배구에 관심이 많아요. ‘싯 볼’이라는 장애 있는 분들이 앉아서 하는 배구와 태권도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스포츠용품은 난민촌 창고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코치들이 사용 목록을 기록하고 사용 후 반납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더러워진 옷이나 신발 등은 깨끗하게 세탁하여 보관합니다.”

- 르완다 현지 스포츠 코디네이터 -



\* 한국대표부 차원에서 별도의 이니셔티브로 진행한 것으로, 지원 기간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후기 보기



마하마 난민촌에서 지원 받은 물품들을 내보이고 있는 마하마 난민촌 스포츠 프로그램  
담당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Mahama Community-based Social Media Influencers



한국 후원자들이 보낸 스포츠 용품을 사용해 마하마 난민촌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 © UNHCR/Mahama Community-based Social Media Influencers



이미지 출처: Daum 영화

### 여러분의 꿈과 희망,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사를 넘나드는 피난 여정 가운데 꿈을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롭게 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시리아 난민, 유스라 마르디니(Yusra Mardini)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더 스위머스(The Swimmers)’를 소개합니다.

### 시리아에서의 평범한 일상,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환경

영화는 2011년 유스라와 사라, 두 자매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수영코치인 아버지에게 수영 훈련을 받고 돌아오던 어느 날, 동생 유스라의 깜짝 생일파티가 시작되고, 흥겨운 노랫소리와 춤사위 가운데 가족 모두가 아무 걱정 없는 듯 보이지만, 언니 사라가 시청하던 대통령 퇴진 시위 영상은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와 이들에게 임박한 위험을 암시합니다. 4년 후인 2015년, 두 자매는 옥상에서 춤을 추면서 평범한 젊은이의 일상을 보내는데, 건물 저편에 빗발치는 폭격과 밤낮 없이 거리를 누비는 무장 군인들,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친구들의 사망 소식은 이들의 삶을 깊숙이 침범한 폭력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 더 스위머스: 전쟁을 피해 꿈을 좇는 여정, 생존을 위한 헤엄에서 희망을 전하는 헤엄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수영해줘”



### 수영장을 덮친 폭격, 눈앞에서 죽음을 마주하다

유스라의 수영 시합이 있던 어느 날, 경기 중 갑자기 미사일이 수영장에 떨어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를 모르고 계속 수영에 집중하던 유스라는 물속으로 들어온 포탄을 눈앞에서 마주하는데, 운이 좋게 목숨은 건졌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날 이후 가족은 두 자매를 먼저 유럽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 튀르키예에 모인 세계 각지의 난민들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 도착한 자매와 사촌 형제는 한참을 헤매다 그리스 레스보스섬까지 데려다주겠다는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10시간을 달려 해안가에 도착하고, 같은 버스를 타고 온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등 여러 나라 출신의 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냅니다.

### 낡은 고무보트 한 척에 맡긴 운명

다음 날 아침, 브로커는 작고 낡은 고무보트에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 넣고 시동을 걸어 배를 떠나보냅니다. 이들이 탄 정원을 초과한 고무보트는 그렇게 망망대해에



보트를 타고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한 난민들  
© UNHCR/Ivor Prickett

남겨지게 됩니다. 정적이 흐르는 배 안에는 금방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곧 엔진이 멈춥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합니다.

### 용감한 두 자매, 보트를 레스보스섬으로 인도하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자, 사라는 뒷줄을 묶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유스라도 언니를 따라 배를 밀며 헤엄치기 시작하고, 다른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매와 힘을 합칩니다. 그러자 극적으로 배의 시동이 걸리고, 유스라는 마치 시합에 참여한 선수처럼 정신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 물살을 가릅니다. 시리아에 두고 온 가족들과의 추억이 머릿속에 뒤엉킨 채 정신이 혼미해질

### “우리 모두를 위해 수영하는 거야.”

아빠를 위해, 나를 위해, 스벤을 위해,  
샤다를 위해, 라잔 하다드를 위해,  
새로운 삶을 찾다 죽어 간 모두를 위해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 수영해.  
넌 단순한 올림픽 선수 이상이란 걸 기억해.”  
- 영화 ‘더 스위머스’ 중 -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100미터 자유형에 출전한  
유스라 마르디니 © UNHCR/Benjamin Loyal

즈음, 누군가가 육지가 보인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들이 탄 고무보트는 무사히 레스보스섬에 도착합니다.

### 그리스에서 다시 시작되는 끝없는 피난 여정

일행은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구호 물품을 받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리스 본토로 이동해 기찻길을 따라 도시에서 도시로,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까지 이동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걷고 자기를 반복하고, 때론 브로커에게 속아서 외딴곳에 버려지고 때론 국경수비대에게 발각되기도 하는데, 이들의 험난한 여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난민이 유스라와 같은 경로로 위험한 해상 피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기준, 71,000명 이상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 도착했고, 이 중 1,000명 이상이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영화 ‘더 스위머스’를 통해 난민의 어려움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유스라 마르디니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 UNHCR/Susan Hopper

“이 영화는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예요.  
영화가 변화를 일으키면 좋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 유스라 마르디니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



유스라의 이야기(영문)  
더보기

# 세계 UN 긴급구호 현장 업데이트

## 수단 분쟁

### | 상황 업데이트

4월 15일 시작된 정부군과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 간의 무력 충돌이 석 달이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수단에서 집을 잃고 피난한 실향민 수가 7월 5일 기준 2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웃 국가로 피난한 난민 수도 65만(7월 11일 기준, 귀환민 포함) 명을 넘었습니다.



포트 수단(Port Sudan)에서 구호품을 받고 있는 수단 실향민들 © UNHCR

### 이집트

2개 주요 국경지점에서 긴급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카이로(Cairo)에 도착한 난민이 등록을 통해 교육과 의료 서비스, 상담, 사회심리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돋고 있습니다. 혼자 도착하거나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위해 '아동 최우선 이익', 가족 추적을 포함한 아동 보호 조치도 가동 중입니다.

### 남수단

하루에 약 1,500명이 남수단에 도착하면서, 국경 부근 경유센터는 여전히 혼잡하고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지만, 남수단 정부 및 파트너 기관과 함께, 육로로 혹은 강을 건너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 차드

18,563가구(6월 11일 기준)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으며, 국경 지역에 새로 도착한 난민 26,000명 이상(6월 27일 기준)을 난민촌으로 이송해 가족 텐트, 교육,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 미얀마-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모카

### | 상황 업데이트

5월 14일, 사이클론 모카가 미얀마 라카인(Rakhine) 주 시트웨(Sittwe)를 강타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번 사이클론으로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가 발생했고, 주거지와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790만 명이, 방글라데시에서는 93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해 23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 활동

지난 5월 29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2단계 긴급구호 지역으로 지정하고 다른 유엔 기구, 관련국 정부, 인도주의 커뮤니티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난민촌인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ar) 지역 난민촌의 피해를 측정하고 긴급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카인주의 시트웨와 다른 여러 곳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 © UNHCR/Mya Yanadar Khine

### ② 미얀마

- 창고에 임시거처 자재와 담요, 매트리스, 조리도구, 모기장, 비바람으로 손상된 대형 임시 거처(Rub Hall) 대체품 등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손상된 구호 물품을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 구호 물품이 피해 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고조사와 공급 대응, 수송로 등을 담당하면서,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뢰 위험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배포했습니다.



방수포, 담요, 조리도구, 모기장 등을 포함한 라카인주 창고의 구호 물품 © UNHCR/Fabien Faivre

### ③ 방글라데시

- 심각하게 손상된 거처를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05가구 이상에 임시 거처를 지원했습니다.
- 성 기반 폭력, 아동 보호, 심리적 응급 처치, 법률 지원, 인식 세션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장애인을 포함해 512명이 심리적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 사이클론에 피해를 입은 의료 시설 11개 중 5개를 수리했고, 피해를 입은 난민촌 내 물과 위생(WASH) 기반 시설 중 70%를 수리했습니다.
- 훈련받은 난민 봉사자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글로벌, 한국대표부 소식

### 글로벌



#### 2023년 세계 난민의 날 행사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타향에서 마주하는 희망’을 주제로 난민의 용기와 희망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우크라이나 뮤지션들의 연주, 아트 워크숍, 스포츠 활동을 포함해 난민의 힘과 회복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고,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는 로힝야 뮤지션들의 라이브 아트쇼와 로힝야 사진작가들의 작품 전시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유튜브와 “우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We Were Here)”라는 제목의 단편 영상 시리즈를 공동 제작해 난민의 날을 맞아 공개했습니다.



© UNHCR/Samuel Otieno  
세계 난민의 날 행사(영문) 더보기



글로벌 소식 더보기

### 한국



#### 제2회 온라인 영화제 개최

한국대표부는 6월 9일~23일 제2회 온라인 영화제를 개최해 정우성 친선대사의 폴란드 미션을 바탕으로 제작한 ‘도도무(Dodomu)’를 비롯한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 7편을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또한 6월 9일, 협력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영화제 개최를 기념하는 ‘도도무’ 상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강주연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이 축사를,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인 이일 변호사가 폐회사를 전했습니다. 2022년에 처음 시작된 온라인 영화제에 이어, 이번 영화제 또한 외교부와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 개최

한국대표부는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대한민국 내 청년들과 함께하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타지에서 마주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내 난민 청년, 대한민국 청년,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 정우성 친선대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진정한 사회 통합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관객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엔난민기구 폴란드 사무소 방문

지난 5월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엔난민기구 폴란드 사무소와 난민 지원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폴란드 거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우크라이나 난민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한적십자사 우수 직원들이 제네바 소재 유엔난민기구 본부를 방문해, 전 세계 강제 실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국



© UNHCR

#### 조선대, 튀르키예 지진 후원금 전달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지난 5월 30일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를 위한 후원금을 유엔난민기구에 전달했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박현주 조선대학교 부총장, 김명식 교수평의회 의장, 최종일 일본유학교수모임 회장, 김철수 기독교수회 회장, 교수평의회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 파란 리본 캠페인

한국대표부는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 리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과 파란 리본으로 연대해주세요.



캠페인 참여



© UNHCR

#### 청년 구직자를 위한 커리어 프로그램

한국대표부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총 5명의 인턴과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 7월 초에는 외교부 주관 및 주최, 서울특별시 공동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홍보 부스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 후원 신청서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휴대전화로 활용하여 문자(1666-539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 정보

현재 유엔난민기구에 후원 중이신가요?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 성함

### 휴대전화

### 생년월일

### 이메일

### 주소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http://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기금선택

- 수단 분쟁  후원금액  100만 원이면, 남수단에 있는 한 가족이 긴급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사이클론 모카  50만 원이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세 가구(5인 기준)가 구호 물품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필요한 곳에  20만 원이면, 차드에 있는 가족에게 두 개의 베이비 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기타( 정기  일시) \_\_\_\_\_ 원

\*정기 후원자가 일시 후원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에 출금되며,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재출금이 시도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속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후원금 사용 예시로, 후원금 사용 내역은 여름호 16~17쪽을 참고하세요.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예금주

(서명 또는 인)

# HOPE AWAY FROM HOME

난민과 함께하는 세상,  
타향에서 마주하는 희망

A world where  
refugees are always included



© UNHCR/Pauline Omagwa

## With You 소식지 설문 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더 나은 소식지 내용을 위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벤트 기간 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 중 일부 추첨하여 유엔난민기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3년 8월 25일(금)까지

참여 방법 우측 QR코드 스캔 후 링크로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 완료



전화 02-773-7272 (기업후원 02-773-7075) 이메일 [withyou@unhcr.or.kr](mailto:withyou@unhcr.or.kr)

홈페이지 [www.unhcr.or.kr](http://www.unhcr.or.kr) 블로그 [blog.naver.com/unhcr\\_korea](http://blog.naver.com/unhcr_korea) 해피빈 [happylog.naver.com/unhcr](http://happylog.naver.com/unhcr)

후원계좌 국민은행 407537-01-004288 (예금주: 유엔난민기구 혹은 UNHCR)

주소 (우)04523 서울특별시 종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Print using soy ink — 유엔난민기구는 환경보호를 위해 콩기름 잉크를 사용합니다.